



우리 집에서도 우리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깨끗이 목욕을 하는 욕실에서도 화학물질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퍼즐을 맞추면서 화학물질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 화학물질을 대할 때는 조심 조심~ 목욕을 할 때도 비누 거품이 남아 있지 않게 뽀득 뽀득 씻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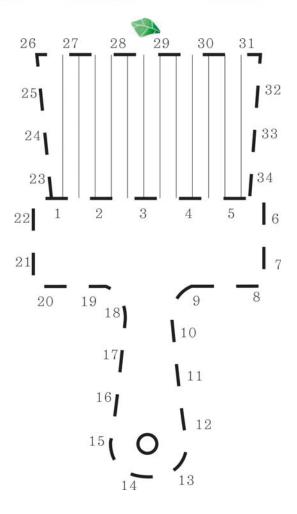




케미가 새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새 집 벽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이나와서 아름이를 괴롭히고 있네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선을 따라서 그려보세요.

페인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나와 새집증후군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된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을 없애려면 환기를 잘 시켜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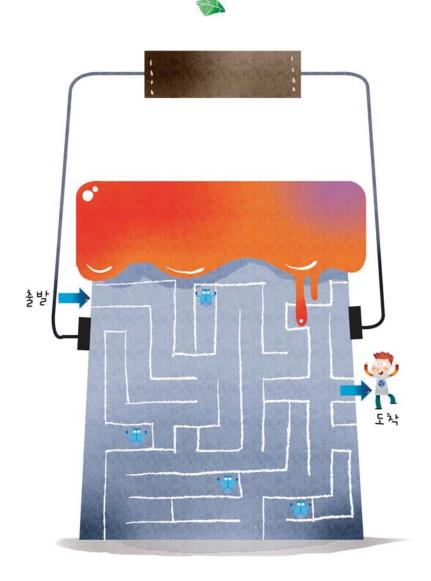






케미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페인트에서 빠져 나오게 도와주세요.

페인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나와 새집증후군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프게 된답니다. 이런 유해 물질을 없애려면 환기를 잘 시켜야 해요.



## 4. 바른 것 고르기月



항상 멋진 모습에 서울을 상상하던 시골 쥐가 드디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한껏 부푼 마음으로 멋지게 집을 짓고 예쁘게 페인트로 색칠도 했지요. 시골 쥐는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집에서만 혼자 생활해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서울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골 쥐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막 가려웠어요. "콜록 콜록" 기침도 하고 말이에요. 쥐가 아프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골 쥐가 아프지 않고 예쁜 새집에서 지내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래요, 환기를 자주 시키고, 환기에 좋은 아주 예쁜 식물들을 많이 키우는 것이 좋아요~















나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물질이에요.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잘 못 사용하면 위험하답니다. 여러분이 내 몸을 다 완성시켜 주세요.



